

벼랑 끝 북미 관계…트럼프 외교 시험대

트럼프 트위터에 북핵 맹비난

미국 언론들 대북 선택지 분석

中 압박·대화 모두 현실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가 선택할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와 관련해 CNN, AP통신,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3일 김정은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만한 강력한 로켓을 보유하는 것을 막으려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4가지 정도의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압박…“中 영향력·의지 약화가 문제”=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8일 대선 승리 이후 적어도 2차례,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하는 중국에 더욱 기밀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수뇌부 간 접촉이 이미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에 따른 중국의 좌절도 커졌다고 말한다. CNN은 전했다.

◇대북 제재 강화…“벼랑 끝 전술만 부추길 수”=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

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김정은 정권의 벼랑 끝 전략만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수도 있다. 북한은 핵 보유가 체제 유지를 위한 절대적 역지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CBM 개발이 최종 단계에 이른 것도 그간의 대북제재가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대북제재를 강화했으나 북한은 능숙하게 이를 피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군사공격…“동맹국 피해 등 감당할 비용 커”=군사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도 있다. 미국 언론은 그러나 이를 가장 실행하기 힘들고 극도로 위험한 방법으로 꼽았다.

북한은 유럽과 경제적으로

로 엮여있던 이란과 달리 잃을 게 별로 없는 국가라는 점, 군사공격으로 전쟁 상황이 되면 한국의 잠재적 파괴의 최대 피해를 본다는 점 등 때문이다.

또 여전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제 장착할지 등도 불투명한 요소라고 CNN은 지적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해 공격해야 할 표적도 많아진 점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격 성사를 어렵게 한다. 군사공격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찮다.

◇김정은과 직접대화…“북미 정상 대화 전제 없어”=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도 택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탓에 트럼프-김정은 만남에 미국인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관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북의 핵 보유를 막고 관계 회복의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한 적이 없으며, 북한과의 합의도 매번 임시방편에 그친 점을 AP는 강조했다.

■트럼프의 대북 선택지

①중국 압박

→김정은 정권에 영향력 없어

②대북제재 강화

→지금까지 큰 효과 못 봐

③군사공격

→한국이 최대 피해자

④김정은과 직접 대화

→임시방편에 그칠 것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밀입국 급증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밀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 텍사스 히달고시 리우 그란데 강 인근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밀입국을 하다 사망한 시체를 옮기고 있다. 국경 감시 강화를 공약으로

3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 텍사스 히달고시 리우 그란데 강 인근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밀입국을 하다 사망한 시체를 옮기고 있다. 국경 감시 강화를 공약으로

EU 본부 주재 영국대사 돌연 사임

브렉시트 협상 핵심 인물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앞두고 이번 로저스 EU 본부 주재 영국대사가 돌연 사임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에 정통한 외교관인 로저스 대사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꼽혀왔다.

애초 그의 임기는 2019년 말까지였다. 로저스 대사는 영국에서 EU에 가장 정통한 인물 중 하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20년이 훨씬 넘게 EU 관련 업무를 하며 인맥을 쌓아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 브렉시트 협상팀 내에서도 로저스 대사 만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의 양자 회담, EU 지도부와의 다자 회담 경험 많은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내 영국 지위 변경에 관한 협상을 이끌었으며, EU가 영국 측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도록 했다.

로저스 대사의 이 같은 경력 때문에 중도 하자에 놀라거나 우려를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찬성진영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EU 탈퇴로 가는 데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취지로 반색하는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다.

강경 탈퇴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민 억제에 위해 EU 단일시장과의 관계를 절단하는 하드 브렉시트의 경고를 더 불어 나오고 있다. 로저스 대사의 사임 원인을 두고 최근 EU 탈퇴파에서 흘러나온 해임 요구를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집권 보수당 내 이들 정파는 로저스 대사 등 브렉시트에 반대한 캐머런 전 총리를 보좌한 인물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다.

지난해 10월 로저스 대사가 영국 장관들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협정이 2020년대 중반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EU 내 공감대라고 말했다는 영국 BBC 방송 보도가 지난달 공개되자, 그에 대한 해임 요구가 커졌다.

/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 조기 퇴진·총선 가능성

이스라엘 경찰, 뇌물 조사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의 전면 조사를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조기 퇴진과 총선 가능성이 거론하며 조사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은 뇌물수수죄로 복역 중인 전임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의 운명과 비교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강제 사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3일 이스라엘 정국 분석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의 정착촌 중단 결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서는 부패 혐의의 조사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네타냐후가 언론의 집중 조망에도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로 여론 악화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네타냐후는 정착촌 중단 결의를 지지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난의 화살을 정적에 돌리고 음모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에도 부인과 자



녀를 동반한 호화 해외여행, 과다한 살림비 지출 논란 등 많은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모두 빠져나왔다.

그러나 아직 전모가 공개되지 않은 이번 수뢰혐의 조사는 네타냐후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앞으로 수 주일간 대중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이번 스캔들은 수뢰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올메르트 전 총리의 운명을 떠올리게 한다고 FT는 지적했다.

아비네리 교수는 회견에서 네타냐후가 정치적 기반인 우파진영에 호소하면서 팔레스타인 분쟁 등 현안에는 강경 입장을 취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가 유엔 안보리 정착촌 표결에서 기권한 베팅 오바마 미 정부를 맹비난하며 총통한 것도 그의 대중영합적 성향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